

東大新聞

1997년(설) 2541년 10월 13일(월요일) 제 1233 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단-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김주만 정택식 / 부주관 조창택 / 편집국장 이석영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 서초구 필동 3가 26(02)260-3491~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동 707(066)770-2657

그것이
값이 있는
신문

법(法)을 탐하여 계율을 이루고 지극한 정성으로 부
고려움을 알아 몸으로 행하여 도에 가까우면 뜻사람
이 사랑하는 바 된다.

법규경 · 호희품 321절

본교·대정대 주최 제10회 학술교류회의 오는 16일

본교와 일본 대정대 주최로 열리는 제10회 한·일 학술교류회의가 21세기 대학 상호교류의 방향-불교종립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 오는 16일 90주년 학술관 제3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이 행사는 본교와 일본 대정대학이 자매대학으로서 양교간 교류를 통한 학문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학술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정태섭(역사교육) 교수 사회로 양 대학에서 3명의 교수 발표로 각각 40분씩 △종립대학에 있어서 불교학의 나아갈 방향(동국대학을 중심으로)=9시 50분 △대학에 있어서의 불교교육(대정대학의 경우)=10시 30분 △대학에서의 상담 프로그램의 기여=11시 10분 △21세기에 있어서의 불교계 대학의 교육(건학정신)의 교육을 중심으로=오후 1시 △세계화와 사회과학=오후 2시 10분 △'학력사회' '경쟁과 인사'와 대학(전후 학력사회의 검토를 바탕으로)=2시 50분 △종합토론 △총평으로 이어진다.

이 행사와 관련해 송석구(철학) 총장은 "다가오는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불교계 대학에 있어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동국인 전진대회 문화유산·환경보호 기치로

'고도 경주 문화유산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전동국인 전진대회'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경주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성공원내 실내 체육관 건립 문제가 학내외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를 주축한 학교측은 "대학 스스로 문화유산보전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여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1·2·3부로 나뉜 치러질 이번 행사의 일정은 △1부=시정공언, 교내 전진대회, 결의문 채택 △2부=가두행진(학교→형산강 주차장), 형산강 환경정소, 귀교 △3부=전동국인 한마당(북악원), 다과회 등이다.

학교측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학생회측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통해 "학교측의 명분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행사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13일) 열릴 중운위에서 이 부분을 결정지를 예정 중이다.

학생회측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학생회측은 "3천명의 참여 인원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부생 전공 및 학과결정 초읽기

학생-신중한 판단... 학교-후속적 보완장치 마련해야

학부생들의 전공 및 학과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96년도 학부·계열 입학자 중 이번학기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서클렛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한 다음 29일 이전에 확정공고가 게시되며, 경주캠퍼스는 11월 5일 이전에 결정한다.

신청절차는 △지도교수와 의 충분한 면담을 통한 본인 적성과 희망전공 숙고 △전공 선택시 소속대학 교과과목에 비친 전제 성숙수준으로 본인의 성적을 인지 △소속학부내의 전공에 우선 순위를 정해 모두 선택 △작성이 완

료된 신청원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통해 소속대학에 접수되며 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학부제체로 운영되는 학생회의 움직임 또한 부수한다. 아간강과 총학생회(회장=김신문·경영4)는 지난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경상학부(아) 전공선택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경영, 정보관리학, 광고학과로 나뉘는 경상학부는 학부학생들의 선호도와 실제 전공선택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한재규·토목공4)의 경우도 공학계열 및 전자·전기공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공선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전공 및 학과 결정안은 미술학부, 전산통계학부(아) 등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간강과 경상학부, 이과대 같은 경우 그 선호도와 전공선택 가능성이 거의 일치해 무난히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과대의 한 학생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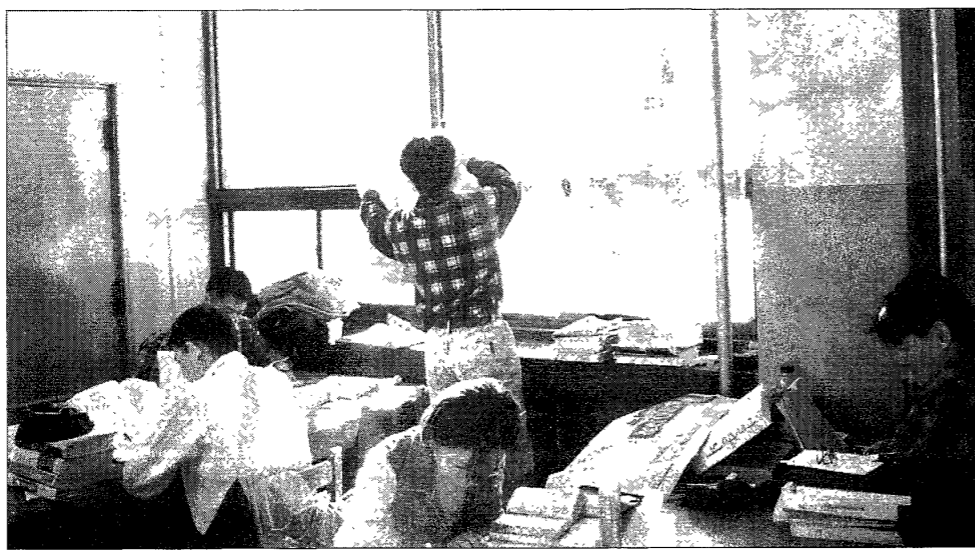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유재하 비대위원장은 "지금 학부의 적지않은 학생들이 학부제에 대한 불안 심리로 휴학 및 군입대를 결정했으며, 이로인해 남은 인원은 우선 정원의 1백50% 배정원칙에 따라 거의 원하는 학과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해 빠져나간 인원들이 다음에 편입학이나 복학 등으로 충원됐을 때 원하는 전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교무처(처장=김주환·지리교육) 학적과는 현 2학년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로 △서울캠퍼스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주캠퍼스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을 갖는다.

이수를 신청할 경우 복수전공을 2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95년도 각 학과장원을 기준으로 1백%안으로 선발, 평균학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출해 심사한다.

복수전공이수자는 제 1전공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수여는 할 수 없다.



중앙도서관 1층 열람실 뒷 편에는 햇빛을 가릴만한 블라인드와 커튼이 없어, 한 학생이 직접 신문 유출주 기자 지로 청문을 가리는 모습

일본 자매대 교환학생 선발

'98교원연수 20일 추천서류마감

연구교류처(처장=박기락·수학) 학술교류부는 '98년도 일본 동국대학과 사보로학원대학 교환학생을 지난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동국대가 3명, 사보로대가 2명으로 선발분야는 개설 전학과이다.

지원자격은 현재 본교 2학년 학부생과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평균 학점 3.0이상이어야 하고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

으며 일본어에 능통한 학생이어야 한다.

파견 조건으로 동국대학은 등록금 및 숙식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월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사보로대학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또한 교환학생들은 △파견기간 중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해 재학생 신분유지 △해당학기 수업료의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파견대학에서의 취득성적을 인정(취득과목, 성적, 학점을 본교 교과과정에 대치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단 파견기간 중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주캠 총대 선거

'속전속결'로 끝내버린 선거일정

등록기간·자질문제 등 논란거리

경주캠 총대의원회(의장=이승욱·법아 이하 총대) 의장 선거 일정이 오는 23일로 확정됨에 따라 98년도 각 단대 및 자치기구장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98년도 선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총대 의장선거가 입후보자의 자질과 등록절차 부분에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11일부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야총 회장직을 사퇴했던 김영일(법아3)군이 이번총대 의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 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2월말까지로 학생회측에 명시된 단체 학생회장직의 임기를 미처 채우지 못한 채 사퇴했던 야총회장이 또다른 공직에 몸을 담으려 한다는데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각 학과회장이 모인 가운데 사퇴의사를 밝힌 이후로 야총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나 자기로 통해 자신의 사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인한, 학생들의 직접 투표로 뽑힌 학생회장이 투표표 행사한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사퇴한 것에 대한

학생간부의 책임성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 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이번 총대의장 선거일정 상의 간소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선거 등록을 알리는 공고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2일간으로,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지난 6·7일 양일까지로 결정함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이 사실상 속전속결로 치러졌다는 의혹이다.

이로인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졸업준비위원회(부위원장=송은경·회계4)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졸업준비의 경우

원서교부 및 선거공고 기간을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시행한다는 점에서 기간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학생회측 상에는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각 단대 및 자치기구별로 그 기간이 다를 수는 있으나, 단 5일만에 선거공고와 등록이 이뤄진 것에 대한 선거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차기 총대의 감사관과 예산 집행권을 행사하게 될 총대 의장 후보의 자질은 오는 23일에 열린 대의원 총회 때 유권자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지만, 모범이 되어야 할 의장 선거가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차이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해경 기자

본사사령

◇ 임직원
 △유철주(문과대 인문학부 1)
 △김미경(문과대 한국어문학부 1)
 △조은순(사범대 역사교육과 1)
 △장희정(상경대 경영학부 1)
 ◇ 임수습기자
 △박영실(사과대 사회과학계열 1)
 △남대철(정보산업과학대 정보산업 학부 1)
 △박양우(법정대 법정학부 1)
 △황성규(법정대 법정학부 1)
 이상 10월 13일자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2주간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11월 3일자로 발행합니다.

동대신문 기획 광고

어디서 불까?
 DGLI
 후문에서 5시에 보자.
 5시가 넘었는데
 DGLI
 매들이 어디에 있지?
 매들이...
 5시 후문 OK.
 후문에서 보자고? 알았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후문 앞
 일방통행이면
 시원할텐데...
 동이생각 END

동대신문

서광 정상에 감사드립니다.

동국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97. 10. 1~10. 10 접수분)
일반발전기금
 교육대학원 '97. 9월 신입생일동(72명)=4,161만7천6백원
 행정대학원 경주·울산·포항지역 신입생일동=1천만원(양호철외 9명)
 김현정(반도체학과 전임강사)=1천만원
 이승연(문화예술대학원생)=1천만원
 김경희(동문, 불교87졸)=2백만원
 박성자 스님(문화예술대학원생)=2백만원
 이상연(사회과학대학장)=1백20만원(합3백20만원)
 함해신(불교신도, 81세)=1백만원
 강성주스님(철보사조실)=1백만원(합3백만원)
 김명실(동문, 불교84졸)=1백만원(합2백만원)
 장민욱(포항병원)=10만원
 박은주(불교신도)=20만원(합1백20만원)
 태정희=2만원(합22만원)
 (소계: 80,342,060원(96년))
동국사랑저금통기금
 조왕원(경제57졸)=13만5천원
 임상록(경주학생회계장)=13,230원
 김경미(법인사무처 직원)=56,230원
 (소계: 204,460원(3년))
 총누계: 2백38만7천6백22원6천6백50원

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

무진장 스님 초빙법회 오는 14일, 오후 2시

정각원(원장=이범산·선학)은 오는 14일 오후 4시에 '선사상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무진장 스님을 초빙해 법회를 개최한다. 학생, 교직원, 일반 불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삼귀의 △창법가 △입정 △설법 △정근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무진장 스님은 본교 초대 교법사 출신으로 조계종 제2대, 제4대 포교원장을 역임했다.

영상 강의실 선보여 학습 효과에 큰도움

관리처(처장=김종욱)는 지난 10일 명진관(A104), 원흥관(E102), 학림관(J502), 개교 90주년 기념 학습관(K307) 등에 영상강의실을 설치했다. 전동스크린, TV모니터, V.T.R, 음향기기 등이 설치된 영상강의실이 완공됨에 따라 교수들은 학습효과가 큰 영상 자료를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 영상강의실 설치를 모든 강의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사회과학 패러다임의 제문제' 세미나 오는 17일

사회과학연구원(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은 오는 17일 오후 1시 부대 '현대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본교 국민윤리학과 박종훈 교수의 사회로 김진철 교수의 인사 및 기조발표 △본교 정치외교학과 황태연 교수의 '정치학과 현대사회과학 패러다임의 제문제' △강원대 사회학과 이기홍 교수의 '사회학과 현대사회과학 패러다임의 제문제' △본교 무역학과 홍승기 교수의 '경제학과 현대사회과학 패러다임의 제문제'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정성진 교수의 '정치경제학과 현대사회과학의 패러다임 제문제' 등 주제발표 순으로 1부가 진행되며 2부는 토론 및 종합토론이 실시된다.

한편, 토론자들은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함태영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김용호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흥기현 교수, 인하대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 등이 참여한다.

총학·총여학생회 후보자등록 29일부터

단과대 의장·학생회장·졸준위원장은 16·17일 양일간

제29대 총대의원회(의장=박병제·철4)는 지난 7일 중앙위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10일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총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과대 의장 및 졸준위 위원장 선거는 △선거공고=13일 △후보자 등록=16, 17일 △후보자 미팅 및 사진촬영=17일 △후보자 공보=21일 △1차유세=단위별 일정 △투표=오는 11월 4~7일 중 택 2일

총학생회 회장 및 총여학생회 회장 △선거공고=27일 △후보자 등록=29일부터 31일 △후보자 미팅 및 사진 촬영=31일 △후보자 공보=11월 4일 △1차유세=11월 18~20일 이와 관련해 박병제 총대의장은 "원칙에 의거한 선거운동 감시를 하겠다"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총학생회 회장 및 총여학생회 회장 △선거공고=27일 △후보자 등록=29일부터 31일 △후보자 미팅 및 사진 촬영=31일 △후보자 공보=11월 4일 △1차유세=11월 7일 △투표=11월 11, 12일

참여 저조로 빛바랜 축전

백상 예술제전·동연제 지난 10일 폐막

'97 백상예술제전 지난 10일 '수 배해제와 구축자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으로 열린 폐막제를 마지막으로 가나인 일정을 끝마쳤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동성애와 인권권을 주제로 한 체전영화제 및 각 종목 결승과 마라톤으로 졌다. 이번 체전은 폐막식에서 우승팀 △축구=화학공학과 △농구=산업공학과 △수구=경제학과의 시상식과 마라톤 우승자 장종익(체교3)군 및 종합우승팀인 경영학과와 시상도 같이 이뤄졌다.

체전 뿐만 아니라, 구축학우 및 수배자들을 학우들에게 알리려는 취지로 열렸던 이번 백상예술제전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그 빛이 바래고 말았다. 참가자가 80여명밖에 되지 않았던 백상 마라톤을 비롯, 10일 열렸던 폐막제에

추계 명찰순례

송광사에서 31일부터

정각원(원장=이범산·선학)과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가 공동 주관하는 제8회 추계명찰순례가 전라남도 승주군 조계산 송광사에서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실시된다. 교직원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35명을 선착순으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학생과에서 접수하며, 참가비는 5천원이다. 한편, 출발장소는 31일 오후 2시 도서관앞이다.

참여 저조로 빛바랜 축전

백상 예술제전·동연제 지난 10일 폐막

'97 백상예술제전 지난 10일 '수 배해제와 구축자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으로 열린 폐막제를 마지막으로 가나인 일정을 끝마쳤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동성애와 인권권을 주제로 한 체전영화제 및 각 종목 결승과 마라톤으로 졌다. 이번 체전은 폐막식에서 우승팀 △축구=화학공학과 △농구=산업공학과 △수구=경제학과의 시상식과 마라톤 우승자 장종익(체교3)군 및 종합우승팀인 경영학과와 시상도 같이 이뤄졌다.

코끼리배 테니스 대회

테니스 동아리 DUTC추최 코끼리배 테니스 대회의 각 우승자가 선정됐다. △남자단식=A조: 정형성(산공 3), B조: 나태준(전자전기1) △여자단식=주효숙(화 2)등이다.

노조, 체육대회 개최

'동국가족 체육대회'가 직원노동조합(위원장=김정욱)의 주관으로 오는 18일 대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열린다. 전체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매해 가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주로 직원들이 많이 참가했다.

청소년 전화상담실 개설

학생생활연구소 주최 봉사활동

학생생활연구소(소장=고진호·교육학)는 동국참사람 봉사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온 지난 8일부터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개설·운영한다. 상담내용은 △학업문제 △정서 및 성격문제 △진로문제 △교우 및 이성관계 △학교폭력, 약물, 가솔 문제 △중고교, 가치관, 인생관 △기타 일상 및 학교생활관련 제반문제 등이다. 상담시간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이며 PC통신은 24시간 운영한다. 상담원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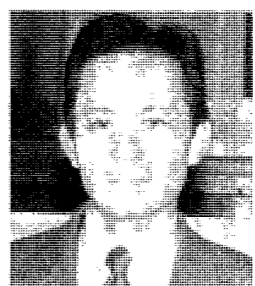
고진호 학생생활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교육학과 과준규 교수, 경찰행정학과 이상현 교수와 김보환 교수를 비롯해 다수의 상담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생생활연구소 임병연 연구원은 "각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고 언론에 홍보했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상담을 통해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본교 경주캠퍼스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도서관을 진단한다 ④ - 임호일 도서관장을 만나

'도서관 현대화'에 중점

중·단기적 발전 방향 설정

학생이 가장 많이 드나들고 언제나 잠음이 끊이지 않는 도서관. 그 도서관에 산재돼 있는 장서·열람실 등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는 임호일(독어독문학)도서관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들어보았다.



-도서관장의 위치에서 바라볼 때 도서관이 대면한 실질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시 절대공간의 부족함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도서관 공간 문제는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이고, 지금 시기에서 문제점을 대처할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가. =희망도서관의 구입이 오래걸리는 것은 현 제도를 볼 때 당장 개선되기 어렵지만 내년 신학기 정도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천년도에 일산 제3캠퍼스가 완공되면 남는 공간을 일부 더 확충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와 더불어, 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도서관내 등 서비스분야 소홀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또한 예산문제도 산재돼 있다.

가령 도서관구입예산이 현행에는 3, 4월 중에 예산집행에 있어 공백기간을 가져 그 기간에는 도서관을 구입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문제가 현재 보완돼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도서관정위원회 또한 현 드러난 문제점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예산문제를 거론했는데 본교 도서관 예산실정은 어떠한가. =본교 중앙도서관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 계획중인 일들이 있다면. =현 중앙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중·단기계획으로 도서관 현대화에 착수하고 있다.

서술소재 타 대학의 경우 심지어 예산이 본교의 4배에 이르는 곳도 있고, 규모가 비슷하거나 작은 대학의 경우에도 동등한 수준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

이제 그 시설들을 활용, 전자도서관 개념의 시설물들을 1층에 마련할 것이다. 최정식 기자

-학부생들의 희망도서 구입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급 3층 참고열람실에는 오디오, 각종 CD 롬 등이 구비돼 있지만 공간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 시설들을 활용, 전자도서관 개념의 시설물들을 1층에 마련할 것이다.

'퀴어영화제 및 토론회' 오늘 실시

동성애 등 성적소수집단의 문화대변

'퀴어 영화제 및 토론회'가 제12대 총여학생회(회장=김인영·사8)와 성적지 위원회(위원장=신순옥·영문2) 주최로 오늘(13일) 오후 3시 개교 90주년 기념 학습관 세미나 3실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집단의 문화를 인정하지는 취지로 △기본은 지켜야지=오

후 3시, 장편 다큐멘터리 스페스보 슴=오후 5시, 레즈비언관 오즈의 마법사가 상영되며, 이어 퀴어영화제 프로그램에 이훈주씨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신순옥 성적지 위원장은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이성에 중심주의를 말한다"며 사고방식을 밝혔다.

회전무대

쇼킹 코리아

O...신한국당 출작시리즈 제 1탄! (제목-DJ죽이기, 감독-김삼재, 제작-이희창)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DJ가 6백 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지난 7일 폭로했는데, 이에 대해 DJ측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반발, 이희창 대표와 강삼재 사무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더욱이 신한국당은 DJ의 비자금과 관련한 2, 3탄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하니, 이에 회전무대자 '쇼킹 코리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꼭바로 살아라!"

스피드 3!!! 개봉

O...학생회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일'은 초소피드로! 학생회관 여자 화장실에는 화장실 칸마다 선반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학생들은 개인 소지품을 밖에다 둔 채 '불일'을 봐야 하는데, 가족이나 도난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총총해진 학교분위기를 의식한 학생들, 서둘러 '불일'을 마치고 나온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잘 설치한 선반 하나, 열 도둑 안 무섭다."

검역아닌 검역

O...검역을 검역하러 왔다고? 지난 6일, 0-157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검역전문가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는데, 나라의 쇠고는 이상이 없다는 확신으로 한국의 검역방식에 강한 불안을 갖고 있었다는 후문. 그러나 철저한 재검역(??)후야 비로써 세균의 존재사실을 인정했다고. 이에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어처구니 없다는 한 학생 한마디 "이미 소화 다 됐어요~"

조심조심

O... "우리모두 정신차리고 걸음 시다" 이 말은 요즈음 동악을 다닐때 외치고 싶은 구호라는데, 이유인즉, 지난주 열렸던 백상예술제전이나 동연제를 선전하는 플래카드가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물론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어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이러다가 즐거워야할 축제의 장이 사고(?)의 장으로..."

우정 장학금 신청

- 지급대상 및 장학금액**
 - 1)지급대상: 본교 학부생 22명
 - 2)장학금액: 기성회비 전액(543,000원)
- 지급 절차 및 일정**
 - 1)서류 접수 기간: '97년 10월13일 - 10월24일 오후 5시까지
 - 2)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생활 사무국(혜화관 1층)
 - 3)장학금 지급
 - 가. 지급 일시: 10월27일(월), 11:00
 - 나. 지급 장소: 생활 사무국(혜화관 1층)
- 신청자 자격조건**
 - 1)보호자의 재산세 납부액이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2)학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및 용자 혜택을 받지 아니한 자
 - 3)학교 장학규정에 미달되지 아니한 자(예: 규정 이수학점 평균 2.0이상)
- 구비 서류**
 - 1)장학금 신청서 1부
 - 2)보호자(등록금 조달 및 가족부양자)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1통
 - 3)보호자 소득세 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급여 생활자는 '96년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 4)주민등록등본 1통
 - 5)성적 증명서 1통
 - 6)보호자 은행 통장 사본 1부
 - 7)생활 보호 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8)자연 재해 피해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9)직계 가족 입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 미비로 인해 심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 철저 요망.

29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외국어 특강 안내(제2차)

구분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Composition	TOEIC	Listening
	Intermediate	Higher Intermediate	Advanced			
오전	Angelika	Nicholas	Dennis Prieto	Janet	Martin	
7:50-8:50	Gatos	Garrison	(L206)	Glendenning	Sherrad	없음
	(강의실 A)	(강의실 B)		(L309)	(Lab A)	
오후	Leon Kaye	Troy Body	Paul Leslie	Irene	Roy	
5:00-6:00	(강의실 A)	(강의실 B)	단, 월: L207	Hanssen	(Lab B)	
6:00			-5:00-6:00	(L309)		
			화: 강의실B			
			-6:00-7:00			
수강료	50,000원			40,000원	30,000원	30,000원
기간	'97. 10. 20 ~ 11. 28 (6주)					
접수처	외국어교육원(동국관 L동 2층)					
접수기간	'97. 10. 13부터 선착순 마감					

외국어 교육원

전공 및 학과결정

1997년도 전공 및 학과결정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기에 공고합니다.

- 대상:** (1)'96학년도 학부, 계열 입학생 중 급학기 2학년 재학생
(2)'97학년도 1학기 학부, 계열 편입학생 중 급학기 2학년 재학생

*단, 불교학부 선학전공 승려, 미술학부, 연극영상학부, 전산통계학부(야) 제외

- 일정:** (1)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97. 10. 20(월) - 10. 22(수)
(2)결정 및 확정공고: '97. 10. 29(수) 이전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소속대학 교과과
- 신청방법:** 본인이 소속된 학부(계열)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지원한다. (동일 전공이나 학과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1)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적성과 희망전공을 숙고한다.
 - (2)소속 대학 교과과에 비쳐진 전체 성적순위에서 본인의 성적을 인지하고, 희망전공의 인기도를 감안하여 지원한다.
 - (3)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취소 및 정정을 할 수 없다.
 - (4)소정기간에 접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학교에서 임의 배정한다.
 - (5)전공(학과)별 최매정정원은 접수기간 전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교무처장

복수전공 이수신청

신규요제도에 의거한 '97학년도 복수전공 이수신청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기에 공고합니다.

- 대상:** '97학년도 2학년 2학기 재학생 중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
- 일정:** (1)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97. 10. 30(목) - 11. 3(월)
(2)확정공고: '97. 11. 12(수)이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소속대학 교과과
- 신청방법:** 원칙상 계열 제한없이 모든 전공(학과)에 2개 전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제한사항 있음.
- 제한사항:** (1)비사범계열 학생이 사범계열로의 신청 불가(사범계열내에서는 가능)
(2)서울, 경주 캠퍼스간 교차 신청불가
(3)예체능계 전공(학과)신청서 해당전공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함.
- 유의사항**
 - (1)'96년 이전에 부전공을 허가받은 후 급학기에 복수전공이 허가된 경우 부전공이수는 당연 자격 상실한다.
 - (2)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의 소속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복수전공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 (3)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정정을 할 수 없다.

교무처장

미국엔 '보검' 무역대상국엔 '공포의 대상'

냉정한 국제통상... 살아 남기 위해선 공정무역 질서 유지 급선무

최근 미국에서 추구하는 통상정책 관리에 대한 추세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하여 대우를 한만큼 상대국에 대해 대우해야 한다는, 이른바 상호혜적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통상의 규칙을 존중하기보다는 통상의 결과에 집착하는 결과배이스 무역정책으로서 관리무역, 혹은 산업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시장의 자율배분기능을 부정하게 되고, 자유 및 시장 지향적 국제통상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 배이스 무역정책을 고수하다보니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국의 국내법을 WTO규정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규정과 국제통상관계의 모든 분쟁을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과 대치되는 슈퍼 301조 및 차제나 부활시키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WTO의 존립에 중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결과배이스 통상정책의 비장의 무기로 이용하고, 이번 한·미 자동차 통

상문제에서도 한국자동차에 대해 불공정 무역시비의 근거가 되는 슈퍼301조는 과거 GATT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미국의 실망(1960년대 미·EEC간 "chicken war"로 불려지는 통상분쟁때의 GATT의 무력함)과 몇차례의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으로 인해 미국관세의 국내산업 보호기능 상실이라는 2가지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의 통상 및 관세법의 Title III, chapter 1, 슈퍼 301로 법제화 되어 그후의 강화된 슈퍼 301조와 구분하여 regular 301조로 통칭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외국이 법률, 정책, 관행 등을 통해서 불공정 통상제한을 한 결과 미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있을시 미통상대표부는 해당국에 대하여 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협상이 실패하면 무차별 보복을 할 수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 '보검' 일지 모르나 해당국은 '공포의 대상' 일 수밖에 없는 조항이다.

여기서 불공정 무역이라함은 부당함과 불공정한 그리고 차별적인 법률, 정책, 관행 등에 의한 통상을 말한다. 부당하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법적인 권리의 위배를 의미하고, 불합리하다는 말은 불공평한 관

슈퍼301조와 한미통상문제

행을 말하며, 차별적이라는 것은 미국의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의 거부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어휘의 모호성이다. 의미의 모호성은 미국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301조(통칭 301조는 조사착수조항인 302조, 협의절차조항인 303조, 조치조항인 304조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는 1988년 종합무역법(OTCA)에서 그 내용이 강화되어 우선협상대상국(PFC) 및 우선협상대상관행(PFPC)의 지정과 관련된 '스페셜 301조'로 나누어서 개정되었다. 슈퍼 조항이 된 것은 첫째, 대응조치결정 및 이행권이 대통령에서 미무역대표부로 이관되어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다. 둘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협정위반 또는 기타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를 의무화시켰다는 등의 강화요건에 근거한다.

한편, '스페셜 301조'의 경우는 '슈퍼 301조'로서도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마련하여 '슈퍼301조'의 시한 12개월-18개월보다 단축된 6개월의 시한을 별도로 정

시사논단



Seungwon Kim

한 것은 미국이 비교우위 분야에 철저한 보호와 보복을 하겠다는 패권주의적 사상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뜨거운 애국심만으로 냉정한 국제통상의 차가운 칼날을 막아내자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소박한 생각이다. WTO제소용 선택의 한 방법일 뿐 최선의 방법은 될 수 없다. 보복과 역보복의 통상전쟁은 한·미 양측 모두에게 희생만 강요한다. 그들이 문제삼는 것은 불공정무역이기 때문에 공정무역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그러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면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상협상의 기술과 로비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 여타국에서 과거 통상마찰이 있을 때 상호 호혜적 협상을 통해서 자율적 수입확대, 자율적 수출규제, 시장 질서유지협정등과 같은 협정으로 문제해결을 했던 방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설

저급한 폭로전 중단하라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지지율 3위를 전전긍긍하던 신한국당이 지난 9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수수를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도 은행계좌번호와 수표번호 등을 공개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북중대선 돈풍을 맞아 휘청한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완전한 날조'라며 신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으며 신한국당의 비자금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을 저울질하던 자민련은 한쪽편들기 차원을 떠나 '저급한 폭로전' 자체를 비난했으며, 검찰은 수사 여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감사는 진정한 의미의 국정감사이기보다는 '비자금 공방'으로 얼룩졌으며 '퇴직금 우선변제 한법불합치결정' 또한 비자금에 불허했다.

우선 밝혀져야 할 것은 신한국당 주장의 진위여부다. 만일 이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면 강삼재 사무총장을 포함한 신한국당은 판세를 뒤집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반면에 '근거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김대중 총재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위여부를 떠나 지금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폭로전의 파장이다. 신한국당이 김대중 총재의 발목을 붙잡기위해 비자금 수수를 주장한 것이 어떤 단순한 '폭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밝히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신한국당은 국민회의에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수표의 원본은 물론 다른 증인자료의 입수과정도 공개하지 않은 채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국민은 심각한 정치불신주의에 빠져있다. 나라가 기아상태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이르러도 정치권에서는 온갖 비리와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으로 하루도 편할날이 없더니 이번에는 '폭로전'으로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재논의 틀로는 김대중 총재의 눈의 가시를 들춰내려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을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약 VS 양약

한약분쟁 또다시 논쟁의 화두

약대학제 6년연기... 통합약사 배출위한 방책

95년의 한약조제시험과 관련된 한약과 양약간의 한약분쟁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약대학제를 6년제로 시행한다는 방침과 함께 이제까지 불법업 영원 침구사법이 지난해에 입법 발표되어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먼저 약대학제안을 살펴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약대학제를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의계측은 통합약사화를 위한 방책이라고 의료인원화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대학제 6년 연기를 공문발표한 복지부측은 "현행 4년제 기초약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임상약학과 실무실습증 전공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6년제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한의계측은 "약대학제의 학기연장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를 일원화해 통합약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해 이후의 방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한약과대학학생회연합(회장=송용훈 본1, 본교 한의과 대학 학생회장 이하 전한련)

은 "독일이나 미국등지에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6년 이상의 약학을 공부해 의사와 임상을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함께 약대학제를 연장한다면 그것은 바람직 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약대학제는 한약과 양약을 통합하는 의도로 해석되기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대한 약학회 건 의회에서 이야기 되는 통합약사와 약의 일원화부분은 93년 한약분쟁시 합의한 한약과 양약을 이원화시킨 것을 전면 백지화 시키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지금 한의 학과의 약학을 시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한련을 비롯해 각 대학에서는 아직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 한의과 학생회와 정학부장은 "현재 본교의 경우 서울 상경문제와 한약분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투쟁방침을 세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의과 위상과 관련해 해마다 제기된 침구사법이 대신과 맞물려 입법 발효되는 등 학문으로서 위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한련 의장인 송용훈은 "침구술도



당연히 한방의술중의 하나다. 그러한 가운데 침구사 학원에서 2달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한 후 침구술을 국민에게 시술한다는 것은 한의사들 전문의술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나 다름없다. 한약조제도 마찬가지지만 침구"는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지역에 분포한 침구사법 자격자를 살펴보면 1백만 이상이 침구술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침구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한 상태여 일부 정치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침구사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책 상응해 한의대 학생들도 현재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한련과 관련 대전에 한의과에서 침구사법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후 전한련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작업과 투쟁방안을 모색 중에 있을 예정이다. 한약분쟁과 한의학 살리기 운동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서양의술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동의보감을 지필만 하준 또한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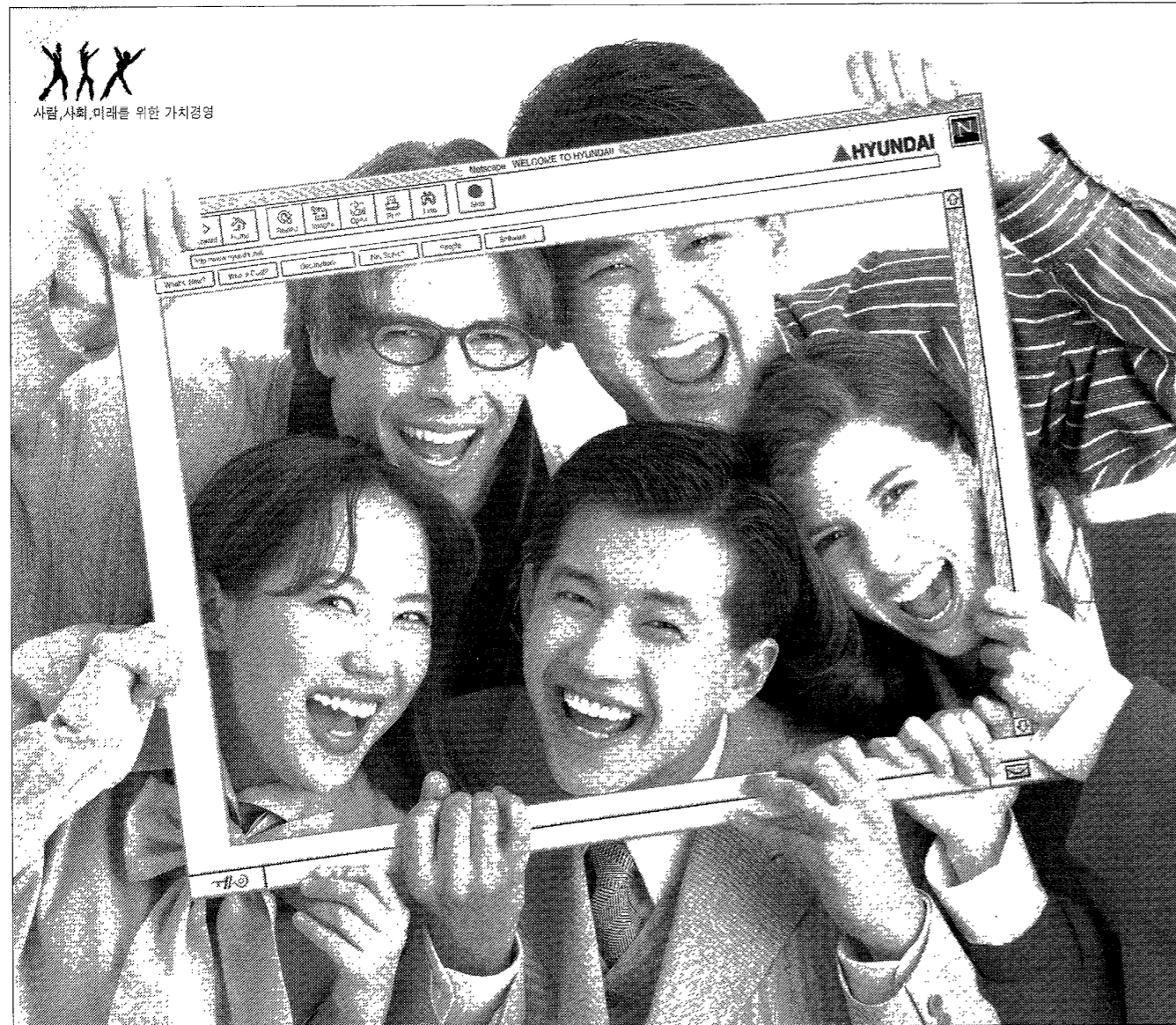
대중평을 발전의 계기로

본교 서울캠퍼스에 이어 올해 경주캠퍼스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이하 대중평)라는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서울캠퍼스의 대중평 결과를 돌이켜 볼 때 학원 주체들의 단합된 노력의 성과가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되돌아왔으며, 특히 본교 21세기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 부합하는 대대적인 공사와 교과과정 개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교육부가 실시하는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본교의 위상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타대학의 귀감이 되는 등 그 활약이 눈부셨다.

우리는 지난해에 보여줬던 동국의 자력을 이제 경주캠퍼스에서 재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미 경주캠퍼스 자체평가 연구보고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다음달 3·4일 양일간 현지 방문평가단의 실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모든 영역별 상황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실사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학원 3주체간의 마음의 조화와 협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대중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평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드러났던 것처럼 3주체중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50%미만으로 저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대중평 실사를 학교 행정 직원들만의 과제로 답변해 버리는 안일함을 떨쳐야 할 것이다. 이는 학원 3주체를 따로 떼어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학원의 발전과 번영에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서로 융화돼야 하는 공동체의 장에 커다란 과오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평가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칫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염원스럽다.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부담감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3주체간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모든 영역별 상황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실사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학원 3주체간의 마음의 조화와 협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인재를 위해
채용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남·여 대졸신입사원모집

- 1. 모집부서 및 인원 (총 3,200명)
 - 이 공 (2,600명) :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재료공학, 전산학, 수석, 물리학 및 관련학과
 - 인문사회계 (600명) : 전학과
- 2. 응시자격
 - 정규 4년제 대학 모집 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9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97년 8월 졸업자
 - 1969년 1월1일 (식사) · 196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 여행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함)
- 4. 채용서류
 - 입사지원서 (당첨률 조정양식) 1통
 - 성적증명서 및 각종 증명서류는 면접시 제출
-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1997년 10월 29일(수) ~ 11월 3일(일) (일요일은 제외)
 - 교부처 (지방은 현대자동차서비스 각 지점)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비전원) 현대인재개발위원회 02/746-3232~3
 -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0-1 051/466-4403
 - 대구 서구 연제동 69 053/353-4211
 - 광주 서구 농성동 415-12 062/368-3211
 - 대전 동구 상남동 503-2 042/627-9470~1
 - 전주 완산구 경원동 3가 73-1 0632/85-5001~2
 - 청주 흥덕구 비하동 323 043/1232-3281~3
 - 춘천 호저동 685 0361/52-4706
 - 강릉 옥원동 159 0391/43-3390~3
 - 접수처 현대인재개발위원회 (비전원 현대자동차서비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 인터넷을 통한 채용서비스 http://www.hyundai.net (교부접수 기간중 지원서 On-Line 접수 및 채용정보 제공)
- 6. 기타
 - 우원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 다음날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자 : 1997년 11월24일(월) ~ 11월29일(토)
 - ARS : 02/700-1913
 - 인터넷 http://www.hyundai.net



동약론



갈등

가을바람이 유난히 차던 지난 10일 오후 5시 녹두사거리. 동아리 '탈'의 김늘이와 '경방 치우'의 시연을 시작으로 제1회 녹두거리 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오정수 학생처장의 녹두거리 문화제 축사와 고사가 진행된 후 문예공연의 공연이 이어진다.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족해..." 그리 많지는 않은 관객이었지만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 간다.

비슷한 시각 만해광장. 무대와 불빛, 그리고 1백여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다.

"얼굴찌푸리지 마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위처럼'에 맞춰 울음을 하고 있다.

Helmut Fleisher 교수 초청 국제 학술 세미나

“맑스주의로부터 맑스의 결별 선언” 역사철학적 반성 통한 역사화가 맑스연구의 기본 방침

맑스와 맑스주의는 지난 80년대 말까지 우리 사회 변혁운동의 한 논리였으며, 세계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포스트 맑스즘, 포스트 모더니즘 등 '포스터즘'의 목소리들이 연이어 외쳐지는 오늘날 맑스와 맑스주의는 이제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한 시기에 맑스와 맑스주의의 철학사적 의미를 반성하고,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독일과 한국에서 맑스주의 연구동향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점을 세우고자 하는 세미나가 지난 10월 8일 사회과학연구원(원장=김진철, 정치외교학) 주관하에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맑스와 맑스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3백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김진철 교수의 '맑스주의와 포스트 맑스주의'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헬무트 플라이셔(Helmut Fleisher: 독일 다름슈타트대학교 명예교수) 교수의 '독일 통일 이후의 맑스주의 연구 동향'과, 전태국(강원대 사회학과)교

수의 '한국에서 맑스주의 연구 경향'이 차례대로 발표되었다.

김진철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세미나 개최의 취지와 관련, 포스트 맑스주의의 등장 배경 및 성격에 대한 파악을 통해 사회과학의 나아갈 방향을 화두로 제시했다. 플라이셔 교수는 맑스주의에 대한 자신의 총체적 평가를 제시하였고, 전태국 교수는 한국에서의 맑스주의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맑스주의의 경향을 분석했다.

특히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를 거치면서 정통 맑스주의자로 입지를 확보한 후 90년대 들어서면서 '맑스주의적 역사철학'을 탐구해 오고 있는 헬무트 플라이셔 교수는 현재 독일에서 맑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의 명성에 걸맞게 철두철미한 역사적·역사철학적 반성이 맑스철학 연구의 기본방침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맑스 및 맑스주의 역사의 연속성은 역사에 있어서 사건의 존재와 과거의 존재는 무효화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며 "이러한 역사를 역사적 의식의 역사로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고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후 종합토론 시간에는 황태연(동국대 정외과), 구승희(서울대 Post-Doc, fellow), 김철호(철학박사, 중앙일보 전문기자), 한승안(고려대 Post-Doc, fellow) 선생 등이 헬무트 플라이셔 교수와 함께 사회주의권 해체 이후 심각한 이론적, 실천적 위기를 맞고 있는 맑스주의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더불어 맑스주의가 70여년동안 누려왔던 그 체제기반의 지위에서 배척되고 그 정당성이 훼손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현재의 국면에서, 사회주의권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맑스주의가 인류의 해방이론으로서 과학적 실천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답이 제시되었다.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말적 지각변동 속에서 맑스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시하고자 열린 '사회주의권 해체 이후의 맑스주의 연구동향' 세미나는 맑스주의와 포스트 맑스주의에 대한 또 다른 유용한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해령 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

서평 - 헌법이야기

시민법학의 권리장전 역할

평생 인권 위해 애쓴 저자 체험 통해 헌법 실상 파헤친 실증서적



헌상범 교수의 '헌법 이야기'

헌법이라고 하면 개헌이 생각난다. 한국의 정치를 보면 대개 영구 집권을 시도한 독재나 집권의 실세로 등장한 세력이 헌법을 자기 편리한대로 틀어 고쳐 왔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다 해서 권력구조 개편론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모습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렇지만은 않다고 소리쳐야 한다. 헌법은 민중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제도이다. 우리 헌법도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헌법인식을 가지고 쓴 책이 헌상범 교수의 '헌법 이야기'이다.

한교수는 헌법을 알리는 사람을 비롯해 헌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독자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헌법정치의 세계로 안내하는 책을 썼다. 헌법 교과서나 참고서가 많이 있으나, 너무 방대하고 서술이 둔중해서 읽기 전에 질려버린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고 시민법학의 권리장전(權利章典) 안에서 헌법책을 써달라고 하는 주문이 많았다.

이 책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많은 현역 교수나 독자로부터 그러한 주문이 한교수에게 직접 있었다. 40년에 이르는 헌법 연구의 실적과 날카로운 정치 비판의 감각 및 평생을 민권을 위해 지조를 굽히지 않고 싸워온 헌상범 교수에게 그러한 기대를

한 것은 당연했다. 그가 1968년대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인 3선개헌을 헌법학자로서 홀로 반대한 결단과 그 후 그의 행적이 이를 실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그가 몸으로 쓴 헌법 이야기임을 그 내용을 읽어 가면서 실감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체험까지도 서슴치 않고 드러내 헌법의 실상을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중대한 기로에 있는 우리가 헌법 정치의 현장을 바로 보고 싶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도 읽어 볼만한 책이다. 이 책에 대해선 구구한 해설 소개보다 직접 헌법 펼쳐 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한교수 말대로 우민정치 조차에 의해 노예모습이 된 법이 아닌 자기의 모습도 볼 것이고, 권력이란 '필요'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인류 공통의 유산인 정치기술도 엿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경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기획-15대 대선 어떻게

- 1. 총론
2. 미디어 정치' 이렇게 자리 잡아야 한다.
3. 대권주자들의 경제정책 분석
4. 대학생이 보는 대선
5. 대선의 구도와 윤곽
6. 올바른 유권자의 태도

대선정국 '현대판 용의 눈물'

막과파식 폭로전 ... 대선윤곽 예측가능성 날로 먹구름

'돈은 모든 철칙을 고무줄로 바꾸어 버린다'는 말이 있다. 우리 대선정국에서 폭로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돈 문제이니 아무래도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돈 때문에 전·노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갇혀 있다. 이런 판국에 엄청난 비자금을 숨기고 있다는 여당측의 폭로가 나왔으니 온 나라가 돈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공격하는 측이나 맞받아치는 측이나 똑같이 돈으로 묶여 있는 형편이니 '남형남제'인 듯 싶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나와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외쳐도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 꼴이다. 이를 놓고 그들끼리 그저 치고 빠지고, 뒤통수 때리고, 다리를 걸고 있으니 선거가 촉제라는 말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수식어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당선을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부리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있으니 원칙이나 비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전부냐 전무냐(all or nothing)의 정글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앞날이 걱정이다.

이번 대선은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세기를 청산하고 신세기를 활짝 열어 나가야 하는 절대결명의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한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통일한국을 창출해야 하는 중대한 과업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국민의 각오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인물이 이른바 출마하겠다는 인물 중에 과연 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요사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될 것 같느냐", "누구를 찍어야 하나"고 서로를 묻는다. 비자금 파문으로 5자구도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매스컴은 열을 올리고 있다. 가히 현대판 '용의 눈물'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니 누가 대선구도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정치판을 정확히 맞춘다면 노벨상감이라고 한다. 아직도 북풍이니, 색깔이니, 병역이니, 세금이니 하는 등의 폭로물이 여기 저기 도사리고 있으니 더욱 예측할 수가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선구도가 5자구도, 3자구도, 양자구도 등 어느 쪽으로 갈는지 알 수 없다. 비자금 파동을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확산될 시 5자가 독자적인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DJP 연합이 불투명해 질 것이라, 그 반사이익을 노린 3김청산, 세대교체를 포함한 후보들은 각자 독자행보를 할 것이다.

비자금 파동이 가라앉을 때에는 3자구도로 갈 공산이 크다. 기왕의 야당연합은 성사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연합이 이루어져 제3 후보로서의 위치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자금 파동이 확산되면 축소되면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연합 내지 연계하여 기존전력대로 양자구도로 급진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설적인 지적이지만 비자금 파동이 양자구도로 급진전환하든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급격한 정계개편이 이루어져 새 판을 짜 수도 있는 형국도 있다.

이제 대선은 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은 투명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바라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표를 기대할 수 없다.

유광진 정치외교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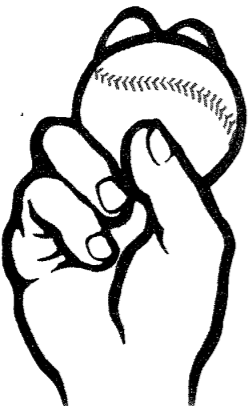
가져오는 내일 함께하는 상양

http://www.samyang.co.kr

“단조로운 구질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

제 아무리 직구를 잘 던지고 변화구를 잘 던져도, 직구 하나 변화구 하나만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력이 강한 사람, 주위를 편하게 하는 사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사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의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양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장 큰 힘을 만들어 내는 기업입니다.

직선적이지만 결단력이 빠르고 일처리가 신속한 사람



직구: 가장 기본적인 구질로 무조건 무조건 스타라이프의 네 구서를 써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 템포 느리지만 남들 못보는 것을 보는 사람



변화구: 직구와 다른 움직임은 길이나 속도가 12~18%정도 느려 타자의 타이밍을 헛기 쉽다

평범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해지는 사람



상기: 직구처럼 보이더라도 타자 앞에서 갑자기 가라앉아 타자를 유도하므로 구질연구에 좋은 구질이다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나 남과 다른 길을 찾아 해결하는 사람



슬라이더: 홈 플레이트 전방 약 10cm에서 타자 안쪽으로 향해 타자를 유도하는 현대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구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끔 주위를 놀라게 하는 사람



넌볼: 시속 75~80km 정도에 타자 앞에서 타자 눈앞에 놓는 볼은 타자는 투수에게도 공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상태의 구질이다



• 삼양사(化纖, 설탕, 시로, 化, 成, 麵, 粉, 肉, 類) • 삼양중기 • 삼양제스 • 삼양식품 • 삼양해성 • 신한제분 • 삼양종합금융 • 삼양에이케어 • SY텍스타일 • 삼양팩스 • 삼양데이터시스템 • 삼양텔레콤 • 삼양피앤에스 • 다원살민피이버 • 삼양그룹연구소 • 양영희 • 수당정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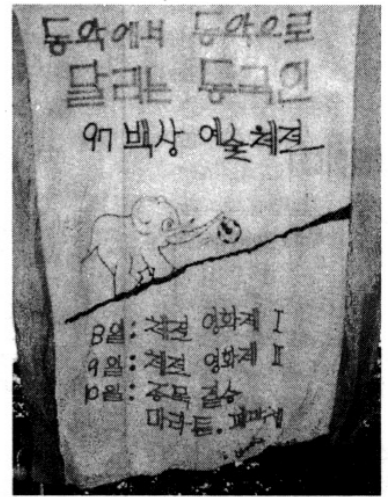
사진으로 본 동학의 가을

높은 하늘과 붉어져가는 단풍 그리고 바람...
 환연한 가을이다.
 지난주 본교는 백상예술제전, 열린 동연제 등
 캠퍼스를 온통 가을 분위기로 채색했다.
 백상예술제전은 농구, 축구, 족구, 마라톤 등
 과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 '리브레터'의
 상영 등이 성황리에 진행됐고, 열린 동연제는
 '분과농구대회', '테마가 있는 거리 문화제',
 '불법영화제', '녹두거리 문화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뜨거운 지난 한 주를 사진에 담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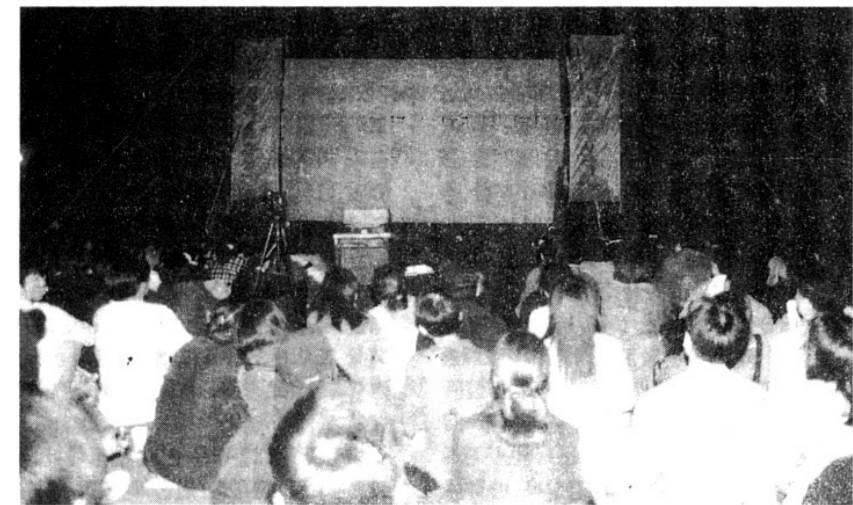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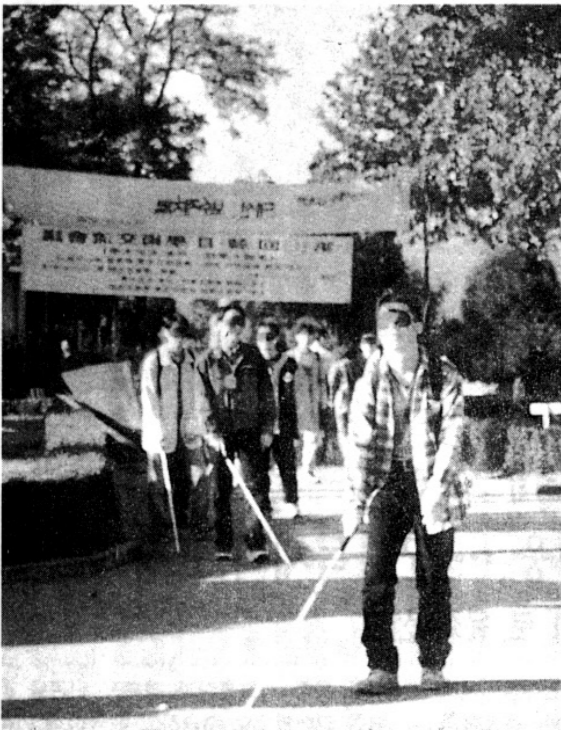
사진 오인택 기자



불상앞에 댄 시각장애인? 다름이 아니라 손짓 사랑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체험해 보고자 눈가리개를 하고 지팡이를 든채 동학을 걷고 있는 것이다 (왼쪽). '내 꿈이다' 점프볼 댄 공을 집기위해 힐끗 점프를 하고 있고, 녹두거리문화제 '시인·학생 노래자랑'에서 '주토피아' 시장이 열창을 한다. 그 위는 백상제전의 꽃인 마라톤대회



위에서부터 차례로
 바람에 휘날리는 백상 예술제전 일정보
 백상제전 폐막제인 '수배해제와 구속학우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제 4회 녹두거리 문화제' 고사장면



공분심으로 문제를 일으킨 화제의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지난 8일 밤 불상 앞에서 상영되고 있다(위).
 동심을 다룬 원기위 감독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학생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뽀뽀하고 가세요" 학생회관 앞에서 우리의 유년시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뽀뽀'가 모습을 보였고(아래), 동아리 '뽀'이 녹두거리에서 길놀이와 하고 있다 (오른쪽 위).
 동학로에 위치한 테마가 있는 거리 문화제'를 한 학생이 관람하고 있다(오른쪽 아래).



新세대 속의 信세대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변혁해가는 新세대- 미래도전의 주역을 꿈꾸는 新세대-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서있는 新세대-
 그중에서도 믿음을 가장 소중히 하는 信세대를 쌍용의 새 가족으로 모십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집부문	모집학과	인원
관리사무직	상경계, 법정계, 어문계, 기타 인문사회계	350명
기술직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산학, 전산관련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영업직	상경계, 법정계, 전산관련학	

※ 1. 모집학과가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으나 관련학과 전공자인 경우 모집학과중 유사학과를 지정 지원할 수 있음.
 2. 쌍용투자증권 관리사무직 및 영업직은 전학과 지원 가능.
 3. 쌍용정보통신 관리사무직 상경계는 경영학과, 영업직은 경영학, 전산관련학 전공자에 한해 지원가능.
 4. 남양포건 관리사무직 법정계는 법학과에 한해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단, 대학원 졸업자는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나. 4년제 정규대학 모집 대상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1998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첨 소경양식 및 OMR카드)1부
 ※ 제출명세서(성적증명서, 모순대상증명서, 공인외국어성적표 등)는 면접시행이전 지원회사 요청시 제출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기 간: 1997년 10월 22일(수)~10월 25일(토) (평일 10:00~17:00, 토요일 10:00~13:00)
 나. 교부처

지역	교부처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중구 세종2가 쌍용빌딩 1층	02)270-5017
부산	부산시 중구 동광동3가 쌍용투자증권 부산지점(국제회계빌딩)	051)243-0707
대구	대구시 중구 삼덕동2가 쌍용투자증권 대구지점(쌍용빌딩)	053)423-7700
광주	광주시 중구 금남로2가 쌍용투자증권 광주지점(쌍용빌딩)	062)232-0707
전주	전주시 권안동1가 103 쌍용투자증권 전주지점(신영은행3층)	065)286-9911
대전	대전시 중구 신화동 쌍용투자증권 대전지점(소정빌딩)	042)255-9131
충주	충주시 북문로2가 72-1(쌍용투자증권빌딩)	0431)56-8200
강릉	강원도 춘천시 호서2동 658-2 쌍용투자증권 춘천영일소(춘천속립빌딩3층)	0361)53-7630
김천	김천시 옥천동 쌍용투자증권 김천지점(대한생명빌딩)	0391)42-1777
제주	제주시 일도1동 쌍용투자증권 제주지점(한일은행빌딩)	064)52-8877

다. 접수처: 서울시 중구 세종2가 쌍용빌딩 18층 원서접수처(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3번출구)
 ※ 우편접수시 주소: ① 100-641 서울시 중랑구제곡사서함 4106호 쌍용인력관리위원회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가. 1997년 11월 5일부터 개별 우편통보 예정
 나. 자동응답서비스 시스템(ARS) (02)700-2111/2422로도 확인 가능

7. 기타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함
 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다. 신체장애를 이유로 채용상 불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회사 인사부문의 문의할 것
 * 인터넷 접수: (<http://www.ssy.co.kr>)



책소개

독신이 아니라 독립이다1

“혼자 살기 때문에 저절로 얻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아닐까?”

어느 곳에도 없애지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노숙속씨가 혼자서도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들을 적어간다.

출판사·세움, 정가·5천8백원



정치인들의 비도덕성, 강대국의 횡포, 대기업의 부도와 연이은 중소기업의 부도에 따른 국내경기의 침체, 취업경쟁, 특수 목적고생들의 집단 자퇴 등 국가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하나 국민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하여도 과연은 아닐 것이다.

사람 사는 것이 재미도 있고, 관심도 있고 보람도 있어야 하며 또한 내일에 대한 기대도 있어야 하건만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기만을 바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래서는 안되는 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뚜렷한 대책을 찾을 수 없으니 이 또한 답답한 심정이다. 물론 나 자신이 대책을 갖고 있다 하여도 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 고생하면서 암기하던 국민 교육현장의 문구가 불현 듯 떠오른다. 비록 이러한 현상이 어떤 의도에서 선포되었고, 또한 국민 각 개인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국민교육현장의 이러한 문구가 지니는 의미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이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결코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주체넘치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정치를 하는 정치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 더 나아가 우리 국민 대다수는 문장 하나가 지니는 이러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이미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본고를 통해서 필자가 학생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너무 쉽게 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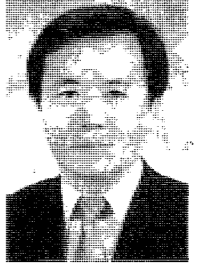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결국 이전의 상황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달하나 천강에

어지러운 마음

다. 정치인들의 비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나, 강대국의 횡포나 그 모든 것이 비단 오늘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어제도 그러했고, 그제도 그러했으니 그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이 지나면 그대로 망각해버리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건이 문제가 되면 다시 한 번 흥분하고, 또 망각해 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래서는 재미있고, 행복하며 강대국이 함부로 횡포를 부릴 수 없는 사회의 구현은 결코 이룩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거울삼아 하루하루를 보람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김용 공과 대학 전기공학과 조교수

고구려, 21세기 준비하는 우리의 이상적 모델

독창적인 사상과 제도·강한의지와 정체성 본받아야

7백년이상 아름다운 청년국가로 성장하다가 갑자기 전사한 나라가 있었다. 청년국가지만 그 국가는 그때까지도 흥망성쇠와 기복이 심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나라였다.

그 나라가 1천3백여년 만에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논문과 책을 쓰고, 그리고 춤과 음악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대영박물관에선 고구려 벽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21세기를 불과 2년여 앞둔 우리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뛰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간 한. 글로벌시대에 맞춰 세계화를 지향하고, 동시에 민족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생존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세계 및 동아시아의 신질서 재편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해결모델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검증된 서구이론을 수용하여 적용시키려 했었다.

고구려는 우리가 잃었고 잊어버렸던 정체성을 찾고 되살리는데 꼭 필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정체성을 말하려면 성급한 사람들이나, 길들여진 사람들은 어서든 국수주의의 발라거나 감자 결에서 좁은 땅에 만족하며 지내온 빈자의 대국콤플렉스 때문이 아니라고 되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구려를 통해서 몇가지 달리 해석해야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반도민족인가? 고구려는 대륙의 평원, 북만주지역의 초원지대, 연해주 일대의 삼림지대와 함께 한반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동해와 황해의 중부해안을 해양활동의 영역으로 삼았다.

이러한 자연영역을 확보하였으니 그들

의 경제 형태와 문화양식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고구려인들은 농경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초원에서 말과 가축들을 키우는 유목민의 삶도 있었고, 대삼림지대에서 사냥을 하였으며, 해양민으로서 어업과 교역도 적극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삶의 융축물이 한민족의 문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는 우리가 대국, 즉 '중국콤플렉스'를 갖지 않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껏 자민족을 위해서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감을 갖지 못한채 다른문화의 주변부와 이유로서 주항거려 왔다. 그런데 고구려는 영토가 넓었고, 군사적으로 강국이었으며, 유목제국들은 물론 중국의 숭한 대국들을 패배 시켰다. 그러므로 당당하고 자의식이 강했으며 세계국가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리고 통령과 달리 독창적인 사상과 제도, 문화를 가진 문화국가였다.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졌으며 미술, 체육, 건축술, 토목공학 등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무엇보다도 미의식이 뛰어났으며 자유의지가 강했다.

또한 고구려는 세계화의 지평을 넓힌 제국지향적 국가였다. 주변의 많은 종족들을 자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였고, 각각 다른 자연환경에서 발생한 문화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질적으로 승화시킨 이른바 다종족적, 다문화 국가였다. 이처럼 민족주의에 충실하면서도 국제적인 고구려 문화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특정문화의 주변부로 편입되려는 현재의 우리에게 한계를 깨닫게 하고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



고구려인의 미소... 평해남도 안역군 오곡리 소재 안역 제조부의 '남주인공상(좌)과 '여주인공상(우) 벽화

다. 고구려의 현재적 의미는 또 있다. 고구려의 번성과 멸망은 동아시아중세의 역학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다. 동아시아중세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동해 남해 황해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지역과 만주일대, 그리고 일본열도가 자리잡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으로서 설정한 역사적 모델이다.

5세기의 고구려는 긴박하게 전개되던 동아시아의 질서재편과정에 능동적이고 현명한 태도를 취했다. 제1단계로 광개토대왕은 정치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팽창시켜 동아시아중세의 전 영역에 걸친 중핵국가로 부상하였다. 제2단계로 장수왕은 해양력을 더욱 강화시켜 외교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중세의 중핵에서 역학관계를 조정하여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7세기에 벌어진 전면적인 질서 재편 전쟁에서 결국은 패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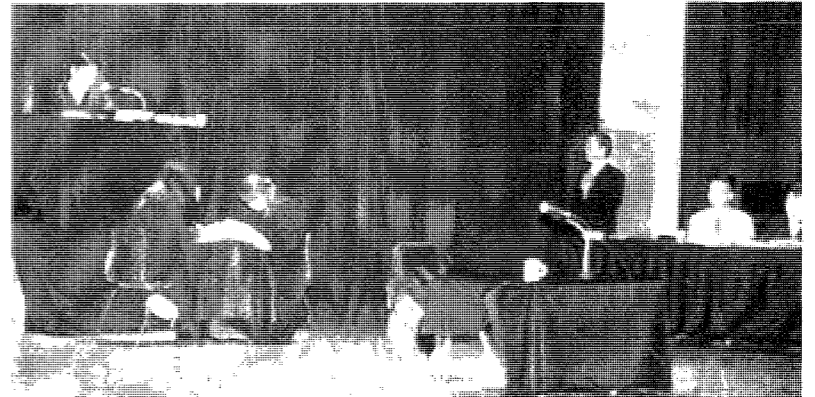


고구려의 현재적 의미는 또 있다. 고구려의 번성과 멸망은 동아시아중세의 역학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다. 동아시아중세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동해 남해 황해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지역과 만주일대, 그리고 일본열도가 자리잡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으로서 설정한 역사적 모델이다.

였다. 삼면포위전략과 70여년 간에 걸친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되었으며, 해양력의 약화로 인하여 중핵조정역할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앞에 둔 지금 동아시아의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면서 향후 민족운명의 기로에 결집되고 있다. 우리는 주변의 강국들에 비하여 정치·군사·경제력은 물론 문화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실수없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법론을 철저히 모색해야 한다. 역사학이 단순한 교훈의 역할을 벗어나 미래예측지표의 기능을 하고, 대응방법론을 찾는 학문이라면 고구려는 우리에게 의미있고 효율성이 강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윤명철 본교 사학과 강사



피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사실인정 심문을 받고 있다.

역사인물법정에 선 박정희

경제성장의 영웅... 군사독재의 표상 논란

'권력에 눈먼 독재자'로 유죄 선고

“본 법정은 피고 박정희 전대통령에게 군사반란혐의 및 경제성장 현상 유포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는 바입니다”

동아리 사무회에서 준비한 제 17회 역사인물 법정에서 나온 최종선고 내용이다.

“현재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정을 통해 사무회에서 준비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무회 이현정(통계3) 회장은 전했다. 검사측은 앞서 밝힌 공소요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1997년 10월 10일 역사인물 법정에 회부했다. 법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인정 심문과 피고인 심문, 증인 심문으로 이어진다.

검사측 증인으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과 민청학련 사건의 강신욱 변호사, YH무역노조를 설립한 최순영지부장,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박정규 목사가, 변호사측 증인으로 당시 한국노총 배삼호 위원장, 현대그룹 정주영회장, 당시 청와대 이발사 나갑세씨가 지목됐다.

변호사측은 박정희를 장면정권이 감당

하지 못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빈곤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수습하고 애국심과 민족애로 조국을 근대화시킨 정치·경제적 지도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은 검사측의 최후승리를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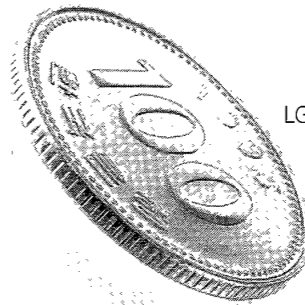
“장면정부는 집권 8개월의 혼란 수습시기였으며, 그 상황평가가 '사회혼란 시기'로 일축될 수는 없다. 또한 박정희 전대통령의 최대업적 '경제개발 계획'은 군인이었던 그의 독재적 발상이 아닌 장면정부의 계획안인 수정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수정된 경제개발계획마저 특혜받은 몇몇 재벌들에게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과도한 외채 도입은 우리나라를 일본과 미국의 경제속국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4·19혁명으로 정취한 민중의 권리, 자유를 빼앗아가며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이땅의 민주주의를 망가트린 주범'으로 지적됐다.

'경제성장의 영웅'으로 '군사독재의 표상'으로 평가됐던 박정희 전대통령은 1997년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진 기자

正道경영·초우량LG

단돈 100원으로 10억원을 따낸 남자?



LG 새내 벤처사업팀 MECA팀의 임철수 씨,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는 입사 3년째의 사원이었지만 지금은 창업자금 10억원을 손에 쥔 여전한 자기사업가입니다. 그의 사업계획은 공중전화함을 이용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확성회의시스템을 통한 교육사업'.

100원짜리 동전으로 공중전화를 걸다 떠오른 아이디어가 LG 새내 벤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회사로부터 자금과 기술 등의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며 년 창업자금 10억원 - 어떻게하면 100억원, 200억원으로 불릴 수 있을까 그는 오늘도 신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LG 새내 벤처제도 - 자기사업가로 키워 드립니다.

LG는 사원들의 창업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잠재되어 있는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기업 최초로 벤처제도를 실시, 사원들에게 자금과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LG /인재개발위원회
http://www.lg.co.kr



한국언론운동 어디까지 왔나

- 1. 총론
- 2. 언론운동의 어제와 오늘
- 3. 언론운동의 한계와 대안

언론은 우리에게 정보를 단순히 전달해주는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 언론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만을 우리에게 전달하며 그것도 나름대로의 해석과정을 거쳐서 전달한다. 언론이 제 4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보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과 책임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언론, 시민의견 수렴해 공정·정확히 전달해야 언론운동, 우리 권리 찾기위한 노력

언론은 정보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적 존재일 뿐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사회라는 유기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혈액과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언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측면에서 언론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언론운동이라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언론사 내부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언론이 사회적 역할을 올바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의 조직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취재와 편집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1974년의 자유실천 언론 운동이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결성을 통한 언론인의 권익보호와 공정성에 대한 투쟁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언론 비판 운동으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단체를 구성하여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1985년의 시청료 거부운동이나 1993년의 TV7기 운동, 시민단체의 선거보도 감시운동, 그리고 수용자 교육을 위한 언론학교의 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언론 수용자 참여 운동으로서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를 받아들이기만 하였던 수동적 대중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직접 언론내용의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주 모집을 통하여 설립된 한겨레 신문이나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민주 방송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언론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소극적인 비판보다는 대안적 매체의 직접 설립을 통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언론을 만들어보겠다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언론운동은 언론매체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권력의 언론탄압에 대한 저항으로서 언론인들과 종교단체, 대학생들의 자유인실천운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YMCA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여 언론보도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언론운동은 종교계나 여성단체, 언론노조 등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었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90년대 들어서 뉴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언론매체들의 등장으로 인한 언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필두로 하는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지금의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박식하고 똑똑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많은 양의 정보가 꼭 필요한 정보, 공정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경계가 넓어질수록 개인적인 노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

문에 우리는 세상사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하고 해석해주는 기관, 즉 언론매체에 의존하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언론은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존재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중요성 때문에 사회에서는 언론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정하게 제시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며, 언론이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을 때 비판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운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며, 이를 위해서 몇몇 지식인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닌 우리들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장하용
사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밀폐된 방문화에 중독된 현대인... 사회부적응 우려 "개인주의 악용한 상술 탈피·공동체 문화로 돌아가자"

누구나 어린 시절 독방을 갖게 해 달라고 어머니를 졸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만의 방'이란 거대한 집안 구조 속에서 자신만의 쉼터였으며 안식처요, 고민을 정리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방이란 어떤 의미인가? 도심 상가에서 한 번 고개를 들어보라. 온통 칸막이 공간, 방들의 천국이다.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편의방, 빨래방, 산소방, 소주방, 찜질방, 방방방...

방의 사전적 의미는 공간이다. '거주 공간으로서의 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의 의미이다. 가족 구성원이 부대끼며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자신과 타인을 격리하기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여유로운 장소였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방은 더 이상 집이라는 공동체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방들은 단순 휴식 공간이나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밀실 공간에는 자신과 자신에게 소속된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며 가족간의 정 따위는 사라진다. 방은 집을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의 '방문화'의 등장과 활성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이 여럿이 모여 있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열 거요"

방문화로 대변되는 현대 문화에서 '공동체 문화의 부재'를 지적하는 윤소희(미술)안은 그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나 그들을 보아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는 정서'를 꼽았다. 밀폐공간을 원하는 현대인의 개인주의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핵가족화에서 나타나는 가족 해체, 인간소외와 청소년 문화부재 등이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러한 개인주의의 갈구와 '개인소외의 고독'을 가만두지 않았다. 대중문화라는 상술로 예쁘게 포장된 빌딩의 간판을 덮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때 붐으로 일기 시작한 방문화는 일단의 진통과정, 즉 음란성 논란과 청소년 유해장소 지적이라는 사회의 비난에도 근근이 견뎌오다가 회오리 같은 검은바다 건너 전성기를 맞이 시작한다. 한 때 비난

의 주체가 됐던 대중들은 이제 소비자로서의 몫을 푹푹 하고 있다. 외로운 자들은 전화방에 가서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한 자들은 비디오방에서 혼자 영화를 본다.

그러나 방문화를 탐닉하는 현대인에게는 후유증이 찾아온다. 방문화에 중독되어버린 현대인은 공동체와 떨어져 더 이상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스트레세를 해소하던 놀이문화는 생산의 문화가 되지 못한 채 인간을 끝판으로 내몰았다.

이제 광장에 아무도 나오려 하지 않는다. 골방에 안주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광장으로 나와야만 한다. 더 이상의 단절은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의사소통 장구를 보수하고 미소와 온정으로 사람을 만나보자. 나만의 방이란 하나의 재충전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광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진 기자



집을 떠난 이시대의 방을 찾아서

노래방

'4235'
"환상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너에게 나를 보여줘...♪"

한 손에 마이크를 잡고 목놓아 열창을 하고 있는 박동국군. 옆에 있던 김동수양 자기도 부르고 싶은 노래라며, 마이크를 빼앗아 더 힘차게 부른다.

"야, 세 줄짜리만 더 불러봐. 노래방에서는 소리치고 힘차게 불러야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벌써 소주 한잔씩 마시고 왔지만 노래방 안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목이 마른 그들은 앞에 놓여 있던 맥주에 자연스럽게 손이 간다.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그들.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 목표표를 뒤적이는 손이 빨라진다. 최신곡부터 구곡까지, 애창곡부터 도전하고픈 곡까지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숨씨는 가수가 들으면 울고 갈 정도라고.

"식당 종업원 3년이면 리얼은 풀린다더냐...나도 노래방 3년에 음치생활 면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나가야 할 때,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한껏 오른 동국군과 동수양. 한 시간간만에 아쉬운 듯 주인 아저씨를 불러 시간을 연장하고 다시 노래를 고른다.

"역시, 노래방에 오면 술도 깨고 스트레스가 모두 풀린다니까, 내일 또 오자. 요즘에는 신곡도 빨리 나오니까 매일 외도 부를 노래는 충분해"
어느새 그들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 노래방. 친구를 만날때나 술자리의 마지막 코스 등 모두가 노래방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불과 4, 5년 전만해도 노래방은 일본에서 들어온 하나의 방에 불과했는데. 그전 동국군과 동수양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 보냈을까?

조은순 기자

비디오방

오늘도 수업시간에 '머리싸움'을 격렬하게 한 나머지, 머리에 빨간 도장자국을 남긴 김모군은 왜 의외인지 졸린 눈을 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온다. 마지막 수업을 마친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집에 가기에 이르러, 마냥 할 일도 없는 그는 망설임 없이 학교 후문앞 '이리와 비디오방'으로 향한다.

박식한 영화광은 아니지만 최신작은 꼭 보고야 마는, 영화 애호가인 김모군은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 애호가'인 그는) 일주일애 한 번 정도는 비디오방에 간다. 극장 보다 저렴한 가격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를 비디오방으로 이끄는 것이다.

단골 손님인 그는 비디오방 주인으로부터 웅성한 대접을 받는다. 한편은 공짜! 그의 영화 선택 취향을 알고 있는 주인은 음향한 미소를 지으며 '빨간 보자기'를 권한다. 그러나 졸린 눈의 김모군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회생'을 찾아 달라고 한다. 이왕 졸린 몸, 개운하게 한잔 꼭 자자는 것이 그의 생각.

"뭐? 안드레 달고프스키? 그게 뭐냐?"
역시 없다. 김모군은 비디오방에서 한 번도 '예술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주인은 '똥' 되는 영화들만 갖다 놓기 때문이다.

할수없이 그는 눈을 부릅뜨고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를 본다. 뻥뻥 댄 이야기, 이것저것 부수기만하는 주인공. 그는 졸리기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은밀한' 소리가 난다. 순진한(?) 김모군, 참다 못해 방을 나온다. 은근슬쩍 방의 창을 들여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텔레비전 화면이 온통 붉다.

김모군은 생각한다. '에이, 나도 에이 하나 만들어야지!'

김미경 기자

전화방

"여보세요, 거기 위치좀 알 수 있을까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인데요."

드디어 김군은 그렇게 고대하던 전화방의 위치를 확인했다. 주위에서 흔히 구할수 있는 '1' 정보지를 통해서였다. 노래방, 비디오방에 이어 자신이 개척(?)해야 할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며 김군은 당당하게 전화방으로 향한다.

전화방은 노래방이나 비디오방과 같이 번화가 매겨진 빌딩이 있다. 그리고 그 내부는 그리 크지 않다. "1 시간에 만원"이라고 말하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그정도 좁아!"라며 스스럼없이 요금을 지불하고 안내된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금은 어두운 작은 공간에 텔레비전과 의자, 전화기가 있다. 이러한 전화방의 내부를 보며 김군은 텔레마에 빠졌다. "내가 여기를 꼭 개척해야 하나?"

외지에 앉자마자 전화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연락없는 자다겐 목소리다. 그 말로만 들던 전화방 단골고객, 한가한 아줌마와 통화를 시작한 것이다.

"나이는 몇이야?", "여자친구는 있어?", "이번기회에 나갈 사귀어 보자" 등의 말을 서슴없이 한다. 김군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남편과의 관계가 좋나요?" 이 정곡을 찌르는 질문은 아줌마는 "그건 아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또한 통화 마지막쯤에는 김군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연애는 아줌마랑 해봐. 아가씨랑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을거야!"

자신의 마지막 개척지가 바로 이 전화방이라고 생각했던 김군. 그러나 김군은 그 마지막 개척지를 포기하고 말았다. 김군에게는 갑자기 만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유철주 기자

산소방

"자연산소방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이차연양을 뺀히 쳐다보며 가우뚱(?)

"내가 이근처 비디오방 노래방은 딱 잡고 있는데 산소방은 처음 듣는걸. 거기서 뭐하는 곳인가?"
자연양은 택시도 못타고 뚝뚝뚝 걸는다. 빌딩 간판을 뒤지는 자연.

"신선한 아미존의 향기를 마셔보세요. 자연산소방. 일단 와보시러가세요"
플래카드가 빌딩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져 있다. 자연양은 계단을 오른다. "역시 공기부터 다르니까"
"어서 오세요"

한시간에 이천원이며 두시간 초과 이용시 천원이 추가된다. 이제 자연양은 오전원으로 세시시간이나 누워 쉬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가방을 풀고 방으로 들어선 자연양은 조금 실망했다. 5평도 안되는 방에 누울 수 있는 의자 10여개가 벽을 향해 놓여져 있고 네타이 부대가 방 안 가득 누워있다. "한계 비자떡인가?" 자연양은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의자에 눕는다.

조금 지나니 소리가 들린다. 빠꾸기 소리, 소쩍새 소리. 그리고 눈 앞 가득 숲이 펼쳐져 있다. 비록 사진일지라도. 그리고 보니 공기는 진짜 좋은 듯하다. 신선한 자연의 공기, 산소를 들이마신 자연양 스스로 집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세시간의 단잠을 자고 나온 자연양을 기다리는 것은 여지없이 도심의 탁한 밤공기.
"아 잠은 잘 잤는데... 음료수 사먹듯 물도 사서 마시고 이제 산소까지 사서 마셔야 되나?"
웬지 서글픈 생각이 가을 밤하늘을 바라본 자연양은 자기 보이는 것이 별다른 인공위성인지 미심쩍기 만하다.

최진 기자

짧은 소식

학교 안에서

제 20회 전국 대학연극제

본교 극예술 연구회가 공연한 '청, 우리들의 청'이 제 20회 전국대학연극제 본선에 진출하였다.
전국대학연극제는 연극을 전공하지 않은 아마추어 대학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연극의 경연장. 본교를 비롯한 정주대, 서울연대 등 9개 학교가 10일부터 18일까지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본선을 치른다. 본교는 지난 10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공연.

퀴어 영화제

동성애자를 비롯한 사회소수자들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취지, 본교 참여학생들 주최로 열리는 행사이며 서울 퀴어영화제 상영제작 중 두 작품을 선정, 시사회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97년 주요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은 장편 다큐멘터리 '기본은 지켜야지'와 '레스보스섬'이 상영되며 퀴어영화제 프로그램인 이혼주제가 토론회에 참석한다.
13일 오후 3시, 5시, 90주년기념학술관 세미나 3실에서.

학교 밖에서

제 2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사람 눈으로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아시아 영화 교류의 거점.

지나해보다

상영작수준이 크게 높아진 60여편의 다양한 영화들이 7개의 색선으로 나눠져 부산시내 5개 극장과 야외상영장에서 상영된다.
10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부영, 제일, 극도, 아카데미 극장, 해운대 수영당 야외상영관에서. 개·폐막식-6천원, 일반-4천원. 인터넷 주소-www.piff.or.kr (051)747-3010

알랭 로브-그리에 영화제

알랭 로브-그리에에 20세기 현대문학의 지평을 연 '누보-로망'의 대표작가이자 영화감독.

프랑스의 짧은 지평을 대표하는 알랭 로브-그리에의 영화가 국내 처음으로 상영된다. '에텐 그후', '유럽 횡단 특급', '불멸의 연인', '아름다운 포로' 등이 상영되며 소설가 허일지의 진행으로 '알랭 로브-그리에의 만남'도 진행된다. 17일 오후 1시부터, 종로 연강홀에서. 선착순 무료 입장. 747-7782~5

메아리

국어실력

▲ '나는 오늘 무엇을 했었더랬어...'
'우리 허즈번드(Husband)가 말이지...'
요즘 TV를 보면 우스개 소리로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자주 사용해 유행시킨 말들이다. 이중과거의 사용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영어 한두마디가 단지 재미있다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영타의 단어와 맞춤법들... 이러한 것들이 국어의 자긍심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지난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지 5백51돌이 되던 날이 었다. 얼마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평일로 되어버린 한글날이 지난 군부시절로 돌아간듯 다투어 '국군의 날' 특집방송을 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는 방송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한글에 대한 자긍심, 애정이 없다면, 그러므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 '지금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말로 된 것들이 보이는가?'
굳이 손 우리말을 차치하더라도 영어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일어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우리 모습이다.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 잡지, 옷, 차 이름까지도 영어나 일어로 지어졌다. 몇몇한 한글 기업이름을 가진 회사들이 세련되어 보이는 영어상호로 개칭한 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오리표' 보다 '베네스'가 더 좋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세련되고 유식하게 보인다는 거다. 영어 한두마디 섞여가며 설명을 하는 교수들, 가슴이나 머리에 U.S.A.라고 달고 다니는 학생들. 팔을 더 좋아하는 이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 영어를 하는 자는 유식한 엘리트계층으로 보는 것, 옷 상표는 좀 세련된 영어로... 그래서 명동의 거리는 어느 나라인지 알들을 보지 않으면 알수가 없을정도인데, 영어 학원은 미어터지고 과외까지 받으며 지내는 우리들. 얼마나 우리것을 사랑하든지, 과연 국어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이태훈 취재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월드컵

월드컵 타지도 못한 컵 때문에 들이는 돈은 어마어마. 이 열기를 끓여주는 북한 동포에게
 △2002년 월드컵 단란주점 분원에서 웨이타 '차범근'을 찾아주세요.
 △우라나라는 축구 해곤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다.
 △음식만 먹고 힘내세요. 요즘 빨간색이 좋아져요. -붉은 악마
 △브라질: 한국>한국>일본
 △신수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소리없는 응원을 하길 바람.
 △이젠 월드컵 진출이 문제가 아니라 본선 8강 진출이 관건.
 △축구협회 너무해!
 서울은행 너무해!
 의환은행 너무해~
 한·일포를 구하고 싶다.
 △우리 오빠 운동화 상표는 "월드컵"이다.
 △월드컵에선, 진승을 목표로.
 △이 기회에 일본을 월드컵 축구대회에 영원히 제명시키자!
 △"Red Devils"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우우~우 (멋있어요)
 △월드컵에다 맥주마시면 과염 맛이나 나올까?(어느 술고래이)
 △차범근 감독은 신수들의 장. 국민의 짧은 해석이 신문선.
 △지금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다. 프랑스 비행기표 예약해놔야 나중에 편하다.
 △붉은 악마도 프랑스 직행이다.
 △태극전사들이여! FIFA의 새로운 색깔로 쓰리라.
 △골키퍼 김병지와 서동명은 스포트라이트를 못받는다. 골키퍼 화이팅! 문지기 화이팅!
 △축구 역사 한국이 다시 쓰였습니다.
 △머니머니해도 맛있는 컵
 △너는 B급 나는 C급 우리는 월드컵
 △축구는 골을 넣은 사람만 영웅이 된다.
 뒤에서 묵묵히 수비하는 우리 선수들에게도 힘찬 박수를 짹짹.



오수기

신재숙 (본교 한방병원 간호사)

환자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백의 천사'

업무·인간관계 소중히 여기며 직업의식 느껴



"간호사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당연 환자들의 빠른 회복일거예요" 편안하게 웃으며 말하는 그녀는 동국대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신재숙 간호사이다. 간호사에 대한 직업관에 대해 질문하니 "간호사는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해요.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짜증난다고 환자에게 짜증내면 안돼요"라며 환자 들보는 마음이 제일이라고 강조한다. 책임간호사 직책을 맡고있는 그녀는 일반병원의 간호사 역할을 하지만 환자들의 건강 안위를 맡고 있다.

병원에서 안내하는 일에 대한 생각을 묻자 "동대 한방병원의 장점이라 생각해요. 처음엔 고급인력 남비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 인생에 도움이 되니깐 이 직업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일반병원과 달리 본교 한방병원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간호사가 안내 데스크에서 환자들의 건강 상담과 함께 초진 환자(처음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증상과 특성에 맞는 진료과를 안내한다는 점이다.

그는 하루에 1백명 정도의 환자들을 살피는데 이러한 과중한 업무에 대해 "업무보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업무는 정해져 있지만 인간관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성격, 외모 등이 다양하니깐, 간호사가 잘해도 환자가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릅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점을 어려워하면서도 신재숙 간호사는 "환자들이 알맞은 진료과에서 치료받아 완쾌되고, 수고했다는 인사를 받을 때 간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껴요"라고 웃으며 말한다.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포부를 묻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라고 솔직히 말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환자에게 편하고 다정하게 다가설 것이다. 간호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대인관계의 폭을 넓혔다는 이 경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다.

노약자보호석 의미투색
도덕성 회복해야

학교로 가는 지하철안에서였다. 일산에서 서울로 가는 3호선은 항상 자리가 넘었다.

버터처럼 끈적이는 3명이 앉을 수 있는 '노약자 보호석'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두명의 남자가 앉아 졸고 있었다. 한 명은 양복을 잘 차려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이고, 또다른 한명은 청바지 차림의 학생이었다. 둘다 매우 피곤했던지 다리를 한껏 벌이고 매우 편안한 자세로 자고 있었다. 지하철이 구과발에 서를 때, 연세가 지긋하신 노부부가 타셨다. 두분이 마땅히 같이 앉을 자리가 없자, 할머니는 내 옆에 앉으시고 할아버지는 맞은 편 옆으로 앉으셨다. 하지만 쪽 벌어진 다리 사이를 비집고 앉기란 역부족이었다. 몇번 앉으려고 시도하자 양복입은 사내가 눈을 찔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한번 힐끗 쳐다본 후 작은 소리로 "에이씨"를 연발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여전히 다리는 벌어진 상태였다. 결국 힘겨운 몸싸움 끝에 할아버지는 앉으셨지만 양복입은 사람은 인상을 쓴 채 다시 잠을 청했다. 그때까지도 옆에 있는 정바지는 눈 한번 뜨지 않았다. 창에 붙어 있는 초록색 '노약자보호석' 표지가 무색해지는 광경이었고, 같은 젊은사람으로서 죄스러워지는 마음을 감출 길 없

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다.
 "노소장유(老少長幼)는 천분질서(天分秩序)나, 불가리아이상도아(不可摩理而逾道也)니라"
 이는 연장자와 연소자의 차이는 하늘로부터 받은 질서이니, 이치를 거슬러서 도리를 손상시키면 안된다는 뜻이다. 점점 신세대가 버릇없어 진다는 말을 듣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가 늘어 받은 대접을 한번쯤 생각해 본다면 도리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

서희준(사과대 신문방송학과)

무질서한 주차전쟁
남을 위한 배려 필요

가을의 청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진흥관·소운동장으로 가는 길은 심리적인 황당함과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짜증나기 이를 데 없다.

그 이유는 상식적인 주차공간을 벗어나서, 학생들이 자유로이 확보해야하는 그 넓은 길까지 뺏겨버려 세워진 차들이 빗

어년 한심한 풍경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 측의 주차공간 미비만을 탓해서도 안되며, 사실상 공간여건이 여유롭지 않을 뿐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과시욕을 위해 캠퍼스의 길을 장악한 양식들을 보며 개인주의를 느끼게 한다. 심지어는 백미러를 접지도 않고 차와 차사이의 간격을 사람이나 겨우 지나가게 주차시켜 놓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럴 때는 멀리 돌아가는 불편함을 접어두고라도 그들의 무차별한 이기주의에 화가나서 순간 차에 대해 행위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그들은 인간이 네발 달린 기계만을 타고 다닌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과 대중평(대중평화경각인정제)으로 포장된 도로가 차를 소유한 학생들의 전유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차를 소유한 학생들의 개인적 자유주의도 인정하지만 지성인으로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세련된 이타주의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윤영미(자연대 가정교육학과)

접속

1. 지하철 문이 닫힌다. 급히 계단을 내려오던 남자가 창을 통해 망연히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조금전 서 있던 자리가 얼마나 고통하게 차단되었는지 실감한다. 열차 밑으로 밀려가고 그의 모습을 보며, 창밖에 실리는 승강장의 낙오자들을 비웃었다. 무릎이 풀리고 취기로 상체가 젖어지며 비라본 어두운 창 너머에서 그림자를 많은 내 영혼이 그가 보냈던 눈길로 나를 본다.
2. 자정이 넘은 시간 노출된 공중전화부스에서 전화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있다. 노란 불빛 아래 단정치 않게 흩어진 머리카락이 그녀를 노려듯 맴돌고, 그녀의 긴 머리칼은 어깨와 수화기를 삼킬 듯 덮고 있다. 그녀의 움직임없는 어깨선에서 통화가 거절된 앙갚음 신호음을 읽다가 문득 지하철 창에 기대던 취기의 사내를 떠올렸다. 시선이 묶인채 걷는 나. 지하철처럼 등뒤로 빠져 나가는 부스의 여자.
3.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시오' 라고 친절한 안내방송이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왕지윤(사범대 국어교육과)

대형관 학생·문화관 그림 식당 차림표	
월	오징어가스(1200) 콜리플라워(1200) 참치김치찌개(1500)
화	돈갈비찜(1500) 하이리이스(1200) 오징어무국(1500)
수	김치볶음밥(1200) 튀김도넛(1300) 짜장도넛(1500)
목	두부만둣국(1200) 순대이썩볶음(1300) 돈육이썩볶음(1500)
금	짜장밥(1200) 한치회덮밥(1500) 햄이썩볶음(1500)
(단위: 원)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월	연두부백반(3000) 삼치구이(3000) 부추잡채(1200) 돈육김치찌개(1200)
화	육개장(3000) 회덮밥(3000) 갈비탕(1500) 떡볶이 백반(1300)
수	청국장(2700) 보쌈장식(3400) 카레리이스(1200) 소고기버섯볶음(1300)
목	추어탕(3400) 오므리이스(3000) 오징어 볶음(1300) 시골곰국(1300)
금	만두전골(3000) 보리보장식(3000) 비빔밥(1200) 볶음밥(1200)
(단위: 원)	

동악광장

목 먹길 축하합니다

△10월17일은 석우와 정시미 컵이 탄생한지 천일되는 날이예요. -이뿐이 △공대의 진용, 재원, 동일 진정한 '길'이 된 길 축하해! -회계과·친구가
 △우리의 든든한 선구 오빠 생일(10월9일) 축하해요. 그리고 언제나 영원한 신중우 오빠의 생일(10월21일)도 축하해요. -행녀가
 △지영씨와 이미 C.가 된걸 진짜로 축하해요. -경상대, 회계학부, 사과대 사기꾼 일동
 △승길이 형의 이쁜 딸 순신을 다함께 축하해 줘시다. -경상 현준
 △아시아지역학부 임경희 일괄도 못생긴게 왜 13일에 태어났지! -문화

수고하셨습니다

△제17회 역사인물법정! 박정희 경제성장의 영웅인가, 군사독재의 표상인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우회



동악광장

목 먹길 축하합니다

△29대 총과 비대위 여러분, 백상예술제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기 아홉

알립니다

△민속극 탈 20주년 기념 정기마당극 공연 "똥대입구? 총무로역? 나는 어디로..." 학성화관 앞 오후 4시경 많이 보러주세요!
 △이부 경제통상 깃발 나왔습니다. 역동 경제통상 화이팅! -국장
 △동국대학교 총부회장 구형관, 총학생회장: 10월14일 오후 2시, 부총학생회장: 10월14일 오전 10시

그리고...

△문수광 원일이랑 근해랑 하연이랑 내일 속초가요.
 △경주의 상희언니에게 언니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해 목먹길에서.
 △짱에게, 내 생각이 날때 가끔 면회나 와줘. 10월말까지 학교에 매인 몸이야.
 △드디어 김정일이 당총비서직을 승계했다.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어찌 되려는지. 통일 조국의 날은 요원하기만 하다. -북한학과 짱

은방님 축하합니다

△창렬야 근대 잘갔다와라. 3년후에 다시 등치자. -POST 트리오
 △축제 때문에 몇 과목 휴강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려는 축제인지 곰곰히 생각해 봤으면. -사과 97H

수고하셨습니다

△승희야! 수고했다. 어제 정말 멋있었어. 단지 우리가 강적을 만났을뿐이다. 우리내년을 기약하자 멋진이 승리 화이팅! -s.o
 △10월 15일은 법정 '96-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걸어오고 있는 삼투의 요정 생일입니다. 우리모두 손 모아 축하합니다. 인경야 생일 축하해' '96공주

수고하셨습니다

△승희야! 수고했다. 어제 정말 멋있었어. 단지 우리가 강적을 만났을뿐이다. 우리내년을 기약하자 멋진이 승리 화이팅! -s.o
 △공공연습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뿐 식구들, 더욱더 힘내서 늙은이들 기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기승 속에도. -재대입원 4학년들
 △나쁜생활 중에도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소리들 12기 캐스팅 여러분, 힘내세요! -아 종류야 불이면 되지
 △관경학우 여러분! 영남제전 준우승 축하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경 출항이
 △10월 1일 유로스 공연 모두 수고 많았어요. 노천강당을 찾아와 주신 학우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아리 연합회에게도 감사... 유로스 4기 공주 △수학교육과 '소중한 아이들' 공연 진짜진짜 멋있었다. 애들이 수고 했데이 -6기 이쁜 봉어 and 뽀스팀
 △동국문화회의 동아리 여러분 힘내세요. -19기 일동

그리고...

△전지계산학과 4학년 모두들 "졸업실형 보고서" 발표 잘하세요 -MOOK 93
 △하나·뽀 공연연습 열심히 힘내서 하세요. -북
 △동국문화회 여러분 글연습 많이해서 좋은작품 냅시다. -18기 일원단
 △몽기선배 동기 여러분! 요즘 공연 준비라서 모두 피곤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밝게 웃고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합시데이 ~

알립니다

△한희예과 상징의 배지 나왔어요 '96티즈
 △10월 30일~31일 한희예과 축제합니다. -실현하는 용기 계 10대 한희예과 학생회